칼 럼

인생은 이어달리기 경주다

정 기 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인생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을 말하며 사는 동안 열심히 일한 보람의 지식정보와 유산을 다음 사람이 쓰도록 남겨주고 빈손으로 간다. 열심히 일하면서 살다 남긴 유산을 이어받은 후손은 선 주자의 뜻을 받들어 더 새롭고 많은 유산을 만들어 이어 주고받기를 통해 인류 문명은 발달하고 발전해 왔다.

이어달리기(릴레이)는 각 개인의 속력을 합리적으로 연결한 단체 운동으로, 계주(繼走)라고도 한다. 선수 개개인보다 4명의 협동심과 단결심이 요구되며, 400m·800m·1,500m 이어달리기가 있다. 가장 빠른 선수를 마지막 주자로, 그다음 빠른 주자를 첫 번째 주자로 하고, 두 번째·세 번째 주자는 적당히 배치한다. 처음 주자가 거리를 벌린 다음, 두 번째·세 번째 주자가 리드를 당하더라도 마지막 주자가 만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배턴을 주고받는 법이 중요하다. 배턴은 다음 주자가 받기 쉽도록 전체 길이의 2/3를 남기고 그 아랫부분을 잡는다. 배턴을 받을 주자가 준비 동작을 할 수 있는 거리는 10m의 준비 지역을 포함하여 30m이지만 배턴을 주고받는 동작은 반드시 20m 배턴 터치 존에서 해야 한다.

배턴을 주는 주자와 받는 주자의 속도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배턴을 주고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달리기경주는 개인의 주력을 측정하기 위한 직선 코스도 있지만, 타원형 트랙 활주로에서 4명의 선수가 배턴을 이어 주고받으면서 달린다. 앞의 주자가 잘 달려 앞섰지만 이어받은 다음 주자가 잘못 달리면 먼저 잘 달린 주자는 헛수고가 된다.

우리 인생도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유산을 이어받았고 나는 아버지로부터 유산과 지식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산다. 나는 이어받기를 잘하려고 교육받고 있다. 열심히 잘 달리려고 노력하여 잘 달려 준 조상의 뒤를 이은 후손은 조상의 값진 유산이 헛되지 않게 열심히 일하며 노력해야 한다. 인생이 이어달리기하는 것처럼 국가도 이어 달리며 발전하고 흥· 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한 것은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연구한 것의 이어받기를 해 더 잘했기 때문이다. 우리 가문 우리 국가의 운명이 내가 어떻게 달리느냐에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나를 부각해 자랑스러운 나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집안의 이어달리기가 나로 말미암아 더욱 앞설 수도 있고 뒤떨어질 수가 있다. 하지만 나는 열심히 일하고 달렸는데 배턴을 이어받을 적임자가 없다면 내가 한 것의 삶이 헛것이고 허무한 세상을 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가는 코스에서 온 힘을 다해 달리면서 내가 이룬 능력인 지식정보 기능 재산을 이어받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인생의 성공한 이어달리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배턴을 이어받을 사람을 기르는 것이 자녀와 국민의 교육이다. 교육이 잘못되면 이어받을 후계자가 없게 된다. 인간의 삶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이어달리기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한다.

가난했던 집에서 태어난 정주영은 열심히 달려 기업가로서 현대그룹 회장이 되어 배턴을 아들에게 인계했으며 아버지의 배턴을 이어받은 정몽구 회장은 더욱 분발하여 국내뿐 아니라 세계 굴지의 현대 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을 발전시켰다. 그릇 만드는 도공은 기술을 자녀와 제자들에게 전수하려고 교육하며 이것이 또 다음 후손에게 이어지는 이어달리기 인생을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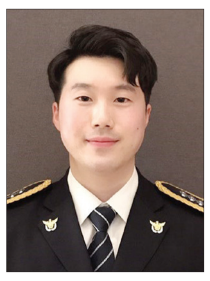
이어달리기 평가는 절대평가로는 같은 거리를 얼마나 빨리 달렸느냐며 상대평가는 달려온 순위가 몇 번짼 인가를 가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절대평가 차원에서는 최근 100년 동안의 눈부신 발전은 과거 몇백 년 동안 이룬 것보다 많은 발전을 하였고 상대평가 차원에서는 세계 10위권 내의 경제 선진국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이어달리기를 잘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어받기를 한 우리 후손들은 자기가 달리고 있는 전문성의 코스에서 보람된 실적을 이루어 배턴을 이어주는 삶이 되게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앞서 달려준 선 주자로부터 받은 보람을 더욱 빛나는 보람으로 만들어 후 주자에게 넘기는 자랑스러운 인생 이어달리기의 주자로서 소명을 다해야 한다.

기 고

청소년 도박, 사회 모두의 책임입니다

허 아 록 고흥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사



청소년,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 시기이다. 사전상 정의로 아동에서 성인으로 바뀌는 과도기(過渡期)로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도덕적 변화가 활발하지만 불균형을 이루는 시기이며, 사춘기, 심리적 이유기, 질풍노도의 시기, 제2의 반항기라고도 한다. 즉, 본인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로써 뭐가 옳은 행동이고 그릇된 행동인지 한번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더욱더 주변에서의 관심이 필수적이다. 아이들이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사이버 불법 도박에 접속하지는 않는지 특히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봤을 때 사이버 도박 등에 중독되어 있거나 시작을 권유하는 주변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있는지 가정과 학교에서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도박이 정말 무서운 것은 그 자체만으로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도박에 이어 연쇄적으로 차례 차례로 문제가 발생하다는 것이다. 도박을 계속하다 돈이 부족하면 가족, 지인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고 지연스럽게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관계가 안좋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 기피 등의 사회적인 문제, 돈이 부족하니 강도 절도 등 여러 중범죄까지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가정과 학교, 우리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쉽게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접속할 수 없도록 좋은 환경, 도은 불법이라는 사회적인 인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들에게는 도박사이트 등에서 이루어지는 사행성 게임은 모두 불법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은 물론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 지인들까지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적극적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 도박,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가족, 선생님,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반드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신고 상담은 112(경찰청), 1336(도박중독치료센터)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honam@naver.com

기 고

새로운 범죄수법의 등장을 조심하세요!

김 수 연 장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신종범죄의 등장에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악성 코드를 이용한 사기 범죄는 여전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요즘 유행하는 범죄 유형은 '구매대행 팀미션'이라는 사기범죄 유형이다.

한번쯤은 받아봤을 법 한 '고수익 재택 단기알바' 문자가 바로 신종사기 유형인데, 이 사기유형은 여러단계를 거쳐 사람들에게 접근한다. 재택알바라 직접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부업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고자 연락하여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일단 연락을 하면, 특정 사이트에 가입한 후 현금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포인트로 다른 사람이 주문한 물건을 대신 구매하면 물건 값의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다. 처음에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소액 충전을 권유 하며 페이백 형식으로 돈을 돌려주는 미끼를 던진 후 피해자가 넘어올 것 같으면 거액으로 넘어간다. 혼자서는 몇백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팀을 짜서 여러명이서 돈을 모으면 쉽게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한다. 큰 물건을 살수록 수익도 20~30%로 올라간다며 단톡방에 참여시킨 후 바람잡이들이 등장하여 바람을 잡는다.

바람잡이들이 피해자가 추가로 현금을 보내도록 부추기고, 피해자가 만약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면 온갖 협박을 한다. 결국 고수익 재택 단기알바는 알바가 아닌 본인의 돈을 더 많이 잃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인 셈이다. 쉽게 번 돈 쉽게 나간다는 말처럼 본인의 노력이 없이 편하게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알고 있는 만큼 당할 위험성은 낮아지기에,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숙지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해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피해를 당했다면 그 즉시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마친 후 직접 진정서, 진술서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법률구조상담	132
▲응급질병상담	1399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 순 열 편집국장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부취재본부 전남 나주시 왕건길 33-14 (061) 333-0805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